

# 활·총·검으로 정복한 파리 올림픽... '금 13개' 역대급 성과

## 2024 스포츠 결산

### 48년 만의 최소 인원으로 금메달 5개 목표 초과 깜짝 호성적 양궁 전통목 석권·사격 '명중쇼' 펜싱은 중주국서 멀티 골드 안세영 작심 발언 거센 후폭풍... 한국 체육계 일파만파 논란

한국 스포츠는 역대 최저 성적이 예상됐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총·검을 앞세워 종합 순위 8위의 깜짝 호성적을 내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남자 축구가 파리행에 실패하는 등 단체 경기 종목의 집단 부진 영향으로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 규모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인 144명(21개 종목)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금메달 목표치는 5개에 불과해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와 2020 도쿄 대회에서 남긴 금메달 6개보다도 적을 것이라는 위기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획득 수 32개는 1988 서울 대회에서 남긴 역대 최다 메달(33개)에서 단 1개 모자란 것이다.

양궁과 사격, 펜싱이 '효자 종목'으로 특목히 활약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들 세 종목에

서 10개의 금메달을 쓸어들였다. 선봉에는 세계 최강 '태극궁사'들이 섰다. 한국 양궁은 5개의 금메달을 석권하는 새 역사를 썼다.

압도적인 활 솜씨를 세계만방에 뽐낸 '신궁'들은 찬란한 기록도 풍성하게 작성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양궁에 걸린 금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혼성전이 도입돼 양궁 금메달이 5개로 늘어난 뒤로는 전 종목을 석권한 첫 사례다.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이 도입된 서울 대회부터 한 번도 안 빼놓고 10연패를 이뤘고, '에이스' 김우진(정주사청·이하 대회 당시 소속팀)은 남자 양궁 첫 3관왕에 오름과 동시에 한국인 올림픽인 통산 최다 금메달(6개)의 대업을 이뤄냈다.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사토루에서는 한국 명사수들의 금빛, 은빛 총성이 하루가 멀다고 울려 퍼졌다.

개막 다음 날인 7월27일 24세 동갑내기 박하준(KT)과 금지현(경기도청)은 환상의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임시현(왼쪽부터)·전효영·남수현 선수와 양창훈 감독이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흡을 뽐내며 은메달을 명중해 이 종목 한국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다음 날엔 여자 공기권총에서 오예진(I BK기업은행)이 깜짝 금메달, 김예지(임실군청)가 은메달을 수확해 시상대를 휩쓸었다. 사로에서 특유의 시크한 매력을 발산한 김예지는 단박에 세계적인 '셀럽'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열여섯 살 반효진(대구체고)은 여자 공기권총에서 한국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 한국 최연소 금메달, 역대 올림픽 여자

사격 최연소 금메달 등 숏한 기록을 세웠다.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혔던 25m 권총 세계랭킹 2위 양지인(한국체대)은 기대대로 금빛 총성을 울렸고, 조영재(국군체육부대)도 25m 속사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초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정도를 예상했던 한국 사격은 사토루에서 이를 훌쩍 뛰어넘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수확했다. 종전 최고 성적인 런던 대회의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넘어섰다.

한국 펜싱은 이 종목의 '본고장' 격인 프랑스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로 '멀티 골드'의 값진 성과를 냈다.

'에이스' 오상욱(대전시청)을 필두로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호흡을 맞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은 남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에 올랐다.

태권도는 금메달 2개에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도쿄 대회에서의 '노골드' 설움을 시

원하게 날려버리고 중주국의 자존심도 세웠다.

2010년대 들어 부진하던 한국 탁구는 '스타' 신유빈(대한항공)을 앞세워 12년 만의 올림픽 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인기 종목'으로 부활했다.

한국 스포츠는 파리에서 찬란한 성적을 냈으나 마냥 웃지는 못했다. 체육계에 여전한 구태와 악습의 일단이 드러난 '안세영(삼성생명) 작심 발언' 파문에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은 시상식 직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대표팀의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해 충격을 안겼다.

안세영은 부상 관리뿐 아니라 대표팀 훈련과 운영 방식,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국가대표 개인 후원과 신인선수 연봉 관련 규정 등을 두루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감사에 전격 착수했고,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연합뉴스



파리올림픽을 빛낸 영웅들 왼쪽부터 펜싱 오상욱, 사격 김예지·오예진·반효진, 배드민턴 안세영 /연합뉴스

## 김도영, '코스모폴리탄' 1월호 커버 장식

### "팬들의 성원 경기력으로 보답...내년 시즌도 부상 없이 풀타임 뛰고 싶어"

2024년 KBO 리그를 화려하게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이번엔 패션계까지 접수했다.

패션 전문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은 김도영을 메인으로 한 2025년 1월호 커버화보를 17일 공개했다.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메이커 위블로(HUBLLOT)와 함께 한 이번 화보는 그의 카리스마와 귀엽고 순수한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화보 직전 날까지 다수의 시상식과 방송 스케줄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는 카메라가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의젓한 태도로 촬영에 임했다.

첫 화보를 커버로 장식한 소감에 대해 김도영은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 어색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사진이 어떻게 나오지 기대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며 첫 패션 화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도영은 올 시즌 팀의 한국시리즈 12번째 우승과 정규시즌 MVP 수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2024 KBO

최고의 슈퍼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40홈런·40도루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는지 대한 질문에 그는 "솔직히 (아쉬움은) 크게 없다. 30~40 정도 있으면 너무 아쉬웠을 텐데, 홈런을 2개나 남긴 채로 시즌이 끝나서 그냥 후련하기만 했다"라며 웃었다.

광주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야구로 핫한 도시인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 팬들은 아무래도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걸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며 내년 시즌 또한 부상 없이 풀타임으로 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김도영은 프로 선수로서 꼭 지키고 싶은 신념에 대해 "작업 특성상 사람들의 입말에 오르내리고, 평가도 가차 없이 받는데 주변 말은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한다"며 "야구가 팬이 많은 만큼 욕도 많이 먹는다(웃음). 저는 DM도 안 막아냈고,

가장 남긴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이나도 2016년 박성현이 찍은 파 5홀 평균타수 4.67타에는 모자랐다. 선수들이 대회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파 4홀에서 펼친 난 선수는 그린 적중률 1위 김수지로 나타났다. 김수지는 816개의 파 4홀에서 평균 3.914타를 쳤다. KPGA 투어에서 지금까지 파 4홀에서 가장 적은 타수를 찍어낸 선수는 2020년 3.885타를 친 김주다. /연합뉴스



패션 전문 매거진 '코스모폴리탄' 2025년 1월호 커버를 장식한 김도영. <코스모폴리탄 코리아 제공>

댓글도 다 읽는 편인데 보다 보면 재미있다. '내가 진짜 야구 선수가 됐구나'하고 실감도 난다"고 밝혔다. /주홍철 기자



지난 14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열린 목포스포츠클럽과 마포스포츠클럽의 축구교류전에 앞서 참가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사)목포스포츠클럽 창단 첫 개최 전국 우수 지정스포츠클럽 교류전 성료

### 6개 클럽 참가 2개 종목 열전

박경래 목포스포츠클럽회장은 "지난 서울마포스포츠클럽과의 업무협약 이 계기가 돼 진행된 이번 교류전은 전문 학생선수들이 지역을 떠나 서로 기량을 점검하고 스포츠클럽간 축제 형태의 교류전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사)목포스포츠클럽은 2023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격상됐으며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의 종목 운영으로 전국 20여개 스포츠클럽 중 운영 활성화 면에서 선두주자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도 "목포스포츠클럽의 교류전 개최 등으로 스포츠클럽의 운영 체계가 해가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 2025년도 전남스포츠클럽교류대회 예산을 처음 확보한 만큼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올해 KPGA 투어에서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을 휩쓴 윤이나. /연합뉴스

## 파 5홀 '여왕'은 역시 윤이나

### 2024 KPGA 투어 평균 타수 4.6818타...파 4홀은 김수지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윤이나가 파 5홀에서 가장 타수를 많이 줄인 선수로 나타났다.

KLPGA 투어는 이번 시즌 윤이나가 파 5홀 평균타수 4.6818타를 찍어내 파 5홀에서 가장 적은 타수를 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즌에 모두 308개의 버디를 잡아낸 윤이나는 40%에 가까운 122개를

파 5홀에서 쓸어들렸다. 파 5홀에서 윤이나 다음으로 적은 타수를 친 선수는 4.75타를 기록한 이예원이다. 4.762타를 친 박현경이 뒤를 이었다.

'파 5홀이 장타자의 놀이터'라는 말은 1위 윤이나를 보면 맞고, 이예원과 박현경은 장타가 아니라 정교한 웨지 샷으로 버디를 많이 잡아내고 보기 위